

선미촌의 변화, 사진으로

전주시 뜻밖의 미술관
‘내일의 노송’ 27일까지
지역주민 참여형 전시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난 성매매집결지의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센터장 김성현)은 오는 27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3-6)에서 ‘내일의 노송’ 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전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열리게 됐다

전시회에서는 비록 아픈 역사지만 기록되어야 할 서노송예술촌과 기억하고 싶은 서노송동 일대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의 시점과 초점으로 바라보고 담아낸 사진들이 전시된다

특히 주민들은 직접 관람객에게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7-1300)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난 성매매집결지의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전시회가 27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황은주씨가 촬영한 사진이다.

로 문의하면 된다

뜻밖의 미술관은 전주시가 옛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지역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삶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뜻밖의 미술관’은 인근 예술협업창작 지원센터인 ‘놀라운 예술터’와 연계해 놀라운 예술터·뜻

의 미술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전시회에 참여한 주민 윤석순씨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좋은 관광지에 가서야 놓렸던 핸드폰 카메라 버튼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담기 위해 수없이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랐고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동네의 보물을 수집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블베이스 앙상블로 가을을 미리 만나요

군산 예술의전당, 31일 오후
에매트 앙상블 초청 콘서트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대공연장에서 가을의 정취를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중후한 음색이 특징인 더블베이스 앙상블팀 ‘에매트 앙상블’을 초청해 8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인다

에매트 앙상블은 젊은 더블베이스리스트 4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의 에매트를 인용해 ‘음악의 진리를 추구하자’라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도에 결성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팀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영향력 있는 연주자들로 국내외 정상급 콩쿠르 입상과 솔리스트, 실내악 주자 등으로 개별활동도 활발히 하고 에매트 앙상블을 통해서 더블베이스만의 깊고 따뜻한 음색과 폭발력 있는 인상을 전하며 더블베이스의 특별함을 관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



31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더블베이스 앙상블팀 ‘에매트 앙상블’을 초청해 8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인다.

를 관객들이 무대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매니저들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래밍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전라북도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여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티켓링크에서 17일부터 사전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nsang.or.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변산해수욕장 공연

부안군립농악단은 최근 변산 해수욕장 공연장에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부안! 부안농악으로 흥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부안농악 아티 공연을 선보였다

농악단은 다채로운 가락과 춤사위가 어우러진 부안 농악 관공을 비롯하여 설장고 놀이, 고깔소고놀이, 부안용기놀이, 대동놀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팽나무의 문화적 가치 살피다

우석대 신현실 교수, 문화재청과 경남 창원서 조사 나서
‘위원들과의 심의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 결정할 것’



우석대학교 신현실 교수(조경학과, 사진)가 최근 인기 상한가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속 팽나무에 대한 조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 교수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최근 경남 창원을 찾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의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드라마에 실제로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에 나무 높이는 10m, 가슴둘레 6.8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이 팽나무는 드라마 속에서 오랫동안 마

음을 지켜온 노거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위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신 교수는 “팽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중남부 지방에 주로 사는 장수목으로 마을의 대표적인 당산나무 중 하나”라며 “현재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전 금남리 황목근과 고창 수동리 팽나무 단 2건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원들과의 심의를 거쳐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실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문위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관리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문성 기자

연극 ‘수상한 집주인’ 완주에서 무대 올린다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 요소로 현대인들 조영

완주군이 오는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수상한 집주인’ 무대를 올린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연극 ‘수상한 집주인-원제: Cash on delivery’은 ‘라이어’와 달링을 통해 그만의 특유의 유머를 선보인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쿨리의 아들 비이클 쿨리 작품이다

21세기 코미디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인의 고단한 일상, 생존을 위한 거짓말, 거짓말로 가득한 사회구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등을 코미디적인 요소를 통해 때로는 편안한 관찰로 때로는 해학적인 통찰로 관객에게 전달한다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장르에 기반을 두어 현대인의 지친 삶에 웃음과 여유라는 치유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간의 사업’ 공모·선정 작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 관람 시 이용자 방역수칙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체 기획공연, 제작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공연문의 완주군청 문화관광과(063-290-2597)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